

부활절
설교

우리가 얻은 승리

<고린도전서15:54~58>



안 진 남 목사 (니하마 그레이스교회)

사도바울은 고전15:17~1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울은 부활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19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사망을 쳐서 이기셨다는 것이며,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또한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들의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얻은 승리(이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승리일까요?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창 2:17)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본래의 의미에는 ‘죽는다’, 또는 ‘파괴한다’, ‘죽인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더욱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고리가 끊어져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그것이 ‘죽음’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납득이 되는거지요. 확실히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지만,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을 이긴 자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죽음’

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하는 것 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물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만든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 긴바늘이 짧은바늘이 빙빙 돌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인간도, 먹고, 자고,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얻은 이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검을 휘둘러 상대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귀가 잘린 사람을 고쳐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검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26:52)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개도 고양이도 하는 것입니다. 잘 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합니다. 우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악으로 악을 갚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보취급을 당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얻어 맞을지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일본기독교
협의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신종간사에 김성제목사 선출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제40회 정기총회가 3년 만에 지난 2018년 3월 19일(월), 20일(화)에 일본 성공회 간다(神田)그리스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고바시고이치(小橋孝一)의장의 개회예배 설교 후에 의사 진행에 따라 각 위원회 보고와 결산보고를 하고 임원 선정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임원 및 총간사 선임이 승인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김성제목사(직전 총회장)가 총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김신야목사(横須賀교회)가

전 회기에 계속하여 서기로 선임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김성제목사, 김건목사(상임위원), 김병호총간사(상임위원), 김신야목사, 이명충목사, 박영원장로, 장정수청년(위임) 등 7명이 총대로 참석하였으며, 이제부터 3년간 NCCJ를 섬기게 되는 제40회 총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議長: 渡部信(日本聖書協会)、副議長: 矢萩新一(日本聖公会)、小海光(ウェスレー財團)、書記: 金迅野(在日大韓基督教会)、梶浜淳(日本聖書協会)、総幹事: 金性濟(在日大韓基督教会)

(보고: 이명충목사)



서남지방회

教団九州教区와 합동집회
「헤이트스피치를 생각하다」 테마로

2018년 2월 25일(주일), 서남 KCC 후쿠오카 부련치에서 일본기독교단 큐슈교구와의 공동집회로 <헤이트 스피치를 생각하는 공동집회Ⅲ - 헤이트스피치와 마주하여 '화해'의 사이를 걸어-> 를, 김신야목사(마이너리티 선교센타 공동주사)를 강사로 모였다.

마이너리티 선교센타의 설립경위와 왜 헤이트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근저에 있는 문제와 용서와 약속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핵심이에 대하여 배우는 시간이었다.

또한 강의를 들은 큐슈교구 長谷川涉教師의 코멘트와 질의 응답, 큐슈교구 의장 梅崎浩二教師의 기도로 마쳤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연대를 체험하였던 것은, 이번 집회에 후쿠오카 지방 밥테스트연합 사회위원회의 협찬이 더하여졌다. 배움과 교류에 감사하는 집회였다.

(보고: 윤선박)

서부여성회

각교회 회장회의 열어
연간활동, 현상과 기도과제 확인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회장회의>가 2018년 2월 6일(화), 고베 허버랜드온천 만요구락부에서 개최되어 22명(5교회)가 참가하였다. 최미혜자회장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하여, 각 교회 여성회장으로부터 연간활동, 여성회의 현현황과 기도과제를 보고받았다.

각 교회 여성회의 인원수와 상황이 다를찌라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서기로 부터 2017년도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은혜충만한 회장회의 시간이었다.

(보고: 윤풍자)



창립30주년에 예배당 현당 향하여

니이가타교회는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첫 예배를 일본기독교단 東中通教会 소예배실에서 시작하여, 그해 10월 1일에 창립기념예배를 드렸으며, 1992년 4월 5일에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97년 9월 29일에 전도소에서 교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며 주님을 사랑했던 신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니이가타교회는 지역의 작은 교회이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니이가타교회의 기도 제목은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28년동안 남의 건물에 세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고, 또한 자유롭게 저녁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선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이가타의 일본기독교단 교회들은 모두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더욱 간절함이 생깁니다.

지금 니이가타교회는 일본교단과도 좋은 선교협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활동은 물론 모든 행사에 동참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가을에 연합 바자회를 통해서 교

류하며 한국교회와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처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보여드리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고,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니이가타교회가 30주년이 되는 때에 아름답게 예배당이 봉헌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회자와 신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말씀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니이가타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익목사)



제5회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

지난 2018년 3월 8일, 9일 부산 해송교회를 장소로,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측의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기독교단(UCCJ),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PCK), 기독교대한감리회(KMC), 한국기독교장로회(PROK)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선교사 파송, 훈련, 현지적응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금번 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가졌는데, 각 교단의 선교사가 꾸려진 회의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러한 위기 관리에 대처하는 규칙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근거로 하여 양국 교단들의 선교사 위기 관리와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선교협약 문서의 수정 및 개정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실무자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가지고 선교협의회 개최를

인종차별 철폐의 날 시민 집회 국련인종차별철폐심사의 과제와 전망 확인

마이너리티 선교센터와 인종차별 철폐 NGO 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3월 21일 인종 차별 철폐의 날 시민집회가 열렸다. 김성제목사(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이사장)가 집회의 의의에 대해 말한 후, 김영수목사(冲縄 그리스도교学院대학)가 오키나와의 차별의 역사를, 諸岡 야스코 목사(諸岡 야스코 목사)가 일본에서의 인종차별의 현상을 말하며, 또한 이주 여성, 아이누 민족, 꾸지 차별 부탁, 재일 코리안을 대표하는 이들이 <당사자>의 육성으로 말해 주었다. 약 50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일반 시민이 모여, 금년 8월에 내려질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일본 심사에 대한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해 확인하였다. 집회 후에는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주최로 오늘의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내기 위한 실험적인 기도 모임, 그리고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김신야, 마이너리티 선교센터 공동주사)



추진 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2018년 11월 26일(월)~27일(화)에 福岡에서 가지기로 했다.



전국 교회 기도 달력

* 선교위원회는 금년 매주일에 전국의 각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기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합시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회

4월에 전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 1일 : 한사랑教会(金根湜牧師)、東京調布教会(丁奎華牧師)
- 8일 : 東京聖山기독교회(金秉喆牧師)、사랑의教会(李惠淑牧師)
- 15일 : 川崎教会(金健牧師)
- 22일 : 横浜教会(李明忠牧師)、横須賀教会(金迅野牧師)
- 29일 : 甲府우리教会(吳聖薰牧師)、長野教会(崔和植牧師)

5지방회의 정기총회 안내

<関東地方会 第69回 定期総会>

- 日時 : 2018년 4월 30일 (月) 10:30
- 場所 : 東京希望 그리스도教会
東京都荒川区東日暮里3-31-16, TEL03-3801-2660

<中部地方会 第55回 定期総会>

- 日時 : 2018년 5월 3일 (木) 11:00
- 場所 : 名古屋南教会
名古屋市港区品川町2-65, TEL052-653-0171

<関西地方会 第69回 定期総会>

- 日時 : 2018년 5월 4일 (金) 10:00
- 場所 : 大阪北部教会
大阪市北区本庄東2-11-6, TEL06-6371-1914

<西部地方会 第34回 定期総会>

- 日時 : 2018년 4월 30일 (月) 10:30
- 場所 : 神戸東部教会
神戸市中央区日暮通6-4-8, TEL078-241-5253

<西南地方会 第68回 定期総会>

- 日時 : 2018년 4월 30일 (月) 11:00
- 場所 : 福岡教会
福岡市博多区千代5-11-48, TEL092-641-9551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110周年 記念大会・合同修養会案内

日時 : 2018年8月12日(主日) 19:00~15日(水) 12:00

場所 : 在日本韓国YMCA(東京都千代田区猿楽町2-5-5, TEL03-3233-0611)

● 標語 :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 宣教課題 : ① 다양한 자체를 감싸는 교회

② 젊고 어린 생명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③ 복음과 공정한 질서 위에 세워지는 교회

④ 화해와 공생평화를 지향하는 교회

● 内容 : 開会礼拝、主題講演、宣教110周年記念大会、

特別講演、讃美と証し、夕礼拝、分団討議、

青年会の集い、女性会の集い、

壮年会(男性)の集い、教役者の集い、その他

● 宿泊 : 各自、各教会別に予約

● 参加費 : 1人5,000円(4回食事代)

● 参加申請 : 各地方会書記

(200名: 関東80名、中部25名、

関西50名、西部25名、西南20名)

● 参加申請 : 2018年6月30日まで

해외한인교회 교육과목회 협의회 제11차 오사카 대회 개최



과 목회 협의회》 제11차 대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8년 2월 21일~24일, 오사카교회 및 도시샤 비와코 리트리트 센터를 장소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에서 46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 6 차 대회를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2008년에 동경에서 가진 적이 있는 금번 대회는 <격동하는 역사속에서 디아스포라교회의 시대적 사명>(렘29 : 1-14)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목사를 주제강연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또한 5 항목의 발제를 통하여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나누었다.

(1) 차세대 시대로 옮겨가는 디아스포라교회(PCUAS박성주목사). (2) 고령화 되어가는 해외 한인사회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교회(PCUSA지선목사). (3) 일본 사회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선교적 과제(KCCJ허백기목사). (4) 난민과 환경 이슈 속에서 해외한인교회(NZPC한경균목사). (5) 남북한 평화 통일 여정을 위한 해외한인교회(NCCK이홍정목사).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 해외한인장로회(KPCA), 캐나다장로교회(PCC), 미국개혁교회(RCA), 호주연합교회(UCA), 뉴질랜드장로교회(NZPC), 재일대한기독교회(KCCJ) 및 대한예수교장로회(PCK), 한국기독교장로회(PROK)가 회원교단이며 2년마다 지역을 돌아가며 대회를 가지는데 다음 제12차 대회는 2020년 2월 18일~20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년마다 가지는 대회에서는 총회를 열어 임원개선을 하는데, 금번 총회에서 회장에는 PCUSA 지선목사, 6명의 부회장 중에 1명은 김종현목사, 총무에 김병호목사, 회계에는 石橋真理惠 전도사가 선출되었으며 목회분과 위원으로 양영우목사, 교육분과 위원으로는 허백기목사가 선임되었다.

금번 대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 및 교통편 등으로 섭겨주신 오사카교회와 관서지방회, 그리고 수고하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보고: 김병호)

2018年度宣教師・神学生研修会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 : 2018年7月9日(月)17:00~19日(木)17:00
- 場 所 : (講義・宿泊) 在日総会神学校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5-1)
- 履修課目 : 在日同胞史、KCCJ歴史、KCCJ神学及び宣教理念、憲法と規則、日本教会史と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礼式書、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教会と現場訪問等
- 交通費・参加費 : 総会が負担します。
※4月30日まで総会事務局の総幹事メールに申請してください。
(kimbyungho@kccj.jp)
- ※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NCCK평화통일 선언 30주년 대회 김종현총회장 외 3명이 참석

지난 2018년 3월 5일~7일, 서울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NCCK) 88평화통일 선언 30주년 평화회의가 개최되었다.

1980년대 초기에 북한에도 기독교회가 있으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관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기독자의 만남이 1984년 일본의 도잔소(東山莊) 회의를 통하여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의 역사적 첫 만남이 이루어 졌으며, 1988년 인천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의 기독자들의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이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시기나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집회나 선언 자체가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자 동경회의>를 1990년 7월에 개최하여 남북한 및 해외 동포의 기독자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왔었다. 그 후 이 회의는 남북의 기독자들이 한반도에서 만날 수 있게 된 2002년경 까지 8회에 걸쳐서 개최하였던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큰 선교적 결실이었다.

NCCK는 금번 1988년 평화통일 선언 3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88선언을 회고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하여 남북한 화해를 위한 대화의 물고가 터이게 되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체택하였다.

KCCJ에서는 총회장 김종현목사와 선교위원장 정연원목사 및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김성제목사가 NCCJ 총간사 내정자로서 발제 강사로 참석하였다.



豊かな味、豊かな心。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総会奨学生 募集案内

総会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

書類は、総会ホームページ <http://kccj.jp.archives/2941> 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 募集人員 : 3名
- 支給金額 : 年額200,000円／1人
- 支給期間 : 1年間 (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 : ①奨学生申請書、②在学証明書、③成績証明書、④履歴書、⑤堂会長推薦書、⑥総会神学生認定書 (各地方会試取部)、⑦各地方会長承認書
- 書類提出先 : 総会事務局
- 締め切り : 2018年4月30日必着